



김재구(서기대)

1. 들어가는 말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금까지도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주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를 찾는 일이다. 1장의 예언자의 소명사화를 시작으로 2-20장에 나타난 시대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예언자의 탄식이 주류를 이루는 부분과 21-52장의 역사적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 왕들과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이 어우러진 부분이 하나로 묶여 있다. 설사 시대적인 구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자료들의 배열에 있어서는 연대기적인 순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드기야-여호야김-시드기야’(렘 21-29장; 34-39장)라는 모호한 순서를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터 크레이기(P. C. Craigie)를 필두로 한 일련의 학자

www.kci.go.kr

들은 현재 형태의 예레미야서는 책이라고 볼 수 없고, 시작에서 끝으로 진행되는 그런 분명한 논리나, 내적 전개과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단지 공적인 예언 선포와 사적인 전기 등의 다양한 자료들이 모인 통일성 없는 ‘선집 중의 선집’ (anthology of anthologies)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¹⁾ 송제근은 이렇게 일관성이 부족해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예레미야서의 비구조적인 이유를 예레미야가 살았던 역사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설명하려 한다. 역사의 혼돈과 포화 속에서 남겨진 책이기에 구성에서 혼돈과 과격한 연결을 보일 수밖에 없고, 칼부림과 성과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고통의 절규 가운데 선포된 예언의 기록이기에 내용과 구조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²⁾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창세기가 서사시, 족보, 전기적인 이야기, 역사적 고증 자료 등 다양한 장르의 내용들이 어우러져 있음에도 문학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³⁾ 그리고 성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 대부분의 내용들이 위기의 시대에 현재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유독 예레미야서만 비구조적인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뒤로하고, 이 책이 보여주는 통일성 있는 구성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작업은 이 소논문에서 마무리될 일이 아니기에 여기서는 예레미야서 전체의 구조를 밝히기보다는 이 책이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

1) P. C. Craigie/P. H. Kelley/J. F. Drinkard, *Jeremiah 1-25* (WBC 26; Dallas, Texas: Word Books, 1991), xxxi-xxxii.

2) 송제근, “예레미야서의 개관과 신학”, 『예레미야 1: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주석 25;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1.

3) Jae Gu Kim, *Chiasmus-The Structure of The Book of Gene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Michael's College, Toronto School of Theology, 2003); 참조,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59집 (2016년 3월), 125-156. 이 논문은 에스라-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며, 신학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는 역사적인 한 시점을 중심으로 주로 역사적 정황이 주어진 부분(렘 21-52장)의 문학적인 구성을 다룰 것이다. 그 시점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서에서 네 번에 걸쳐 중요한 요충지마다 등장하며, 예레미야서의 흐름과 해석의 방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여호야김 4년’이다(렘 25:1; 36:1; 45:1; 46:2). 하지만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점이 연대기적인 흐름 속에 질서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해석의 난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등장하는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점의 의미는 물론, 그 위치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규명하여 예레미야서 해석에 한 가지 난점을 해결하려 한다. 물론 차후의 연구를 통해서 비역사적인 정황을 보여주고 있는 예레미야 1-20장과 역사적 정황을 다루는 예레미야 21-52장의 상관관계 또한 규명할 것이다.

예레미야서가 편집적인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여러 편집층이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⁴⁾ 그리고 편집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70인역(*Septuaginta*)의 존재로 예레미야서 연구는 더욱 복잡해진다.⁵⁾ 이 논문에서는 개역개정성경이 따라가고 있는 마소라 사본(Masoretic Text)의 구성 순서에 의미를 두고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다양성과 편집층들이 최종적인 다름을 통하여 통일성 있게 현재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그 현재 형태를 중시하는 차일즈(B. S. Childs)의 정경적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 책의 문학적 구성이라는 것이 정경적인 형태를 무시하는 순간에 늘 산산조각으로 쪼개어져야만 하는 비운을 겪어야 한다면, 의도된 구조는 현재 형태 속에서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구체적인 자료비평과 편집비평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박동현, “예레미야”, 『구약성서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88-592.

5) 70인역(*Septuaginta*)과 마소라 사본(Masoretic Text)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마소라 사본과 한글성경에는 열방신탁이 렘 46-51장에 나타난다면, 70인역에는 25장 13절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2. 여호야김 4년의 수수께끼(렘 25:1; 36:1; 45:1; 46:2)

여호야김 4년의 이야기는 중요한 분기점마다 등장한다. 그 극적인 출현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드기야-여호야김-시드기야’(렘 21-33장; 34-44장)라는 흐름을 가진 역사의 수레바퀴가 두 번에 걸쳐 진행해 나가는 그 중심에 각각 한 번씩 여호야김 4년이라는 무대가 마련된다(렘 25:1; 36:1).

	시드기야	여호야김 4년	시드기야	회복과 좌절
1 단계	렘 21-24장	렘 25-27장	렘 28-29장	렘 30-33장
2 단계	렘 34장	렘 35-36장	렘 37-39장	렘 40-44장

그리고 이 두 번의 수레바퀴가 마감된 시점인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또다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열방신탁이 출발하는 시점인 46장 2절에서 재등장한다. ‘시드기야-여호야김-시드기야’라는 구조에서 보듯이 비록 왕조의 연대기적인 틀은 깨졌을지라도 여호야김과 그의 통치 4년을 중심에 두려는 배열의 원리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예레미야 45장의 위치이다. 분명 여호야김 4년에 나타난 바룩의 탄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심지어 잔류민들까지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의 시점에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를 넘어서서 배열의 원리마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열방신탁을 이끄는 46장 2절의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차라리 70인역에 나타난 배열인 예레미야 25장 13절 이후가 훨씬 더 안정적인 위치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이러한 여호야김 4년의 위치를 추적하며 그 배열의 신학적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1) '시드기야-여호야김-시드기야'(렘 21-33장; 34-44장)의 배열 원리와 여호야김 4년(렘 25:1; 36:1)

연대기적인 구조에서 예레미야서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뒤엎혀서 만들어 내는 두 개의 흐름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멸망의 예고가 제시되고(렘 21-29장), 그 멸망 뒤에 벌어질 회복의 이상이 연결되고(렘 30-33장), 두 번째에는 멸망예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이고(렘 34-39장), 그 뒤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회복 프로그램이 좌절되는 이야기가 연결된다(렘 40-44장). 이 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단계(렘 21-33장) - 유다에 대한 징계선언과 회복의 이상 A. 21-24장 시드기야(24:8 나쁜 무화과) B. 25:1-27:1 여호야김 4년과 시작 A'. 27:2-29장 시드기야(29:17 나쁜 무화과)	징계예고
→ 30-33장 회복의 미래에 대한 이상	회복이상
2단계(렘 34-44장)-유다에 대한 징계성취와 회복 프로그램 실행의 좌절 A. 34장 시드기야 - 바벨론이 성을 칠 때(나쁜 무화과 징계) B. 35-36장 여호야김 4년 A'. 37-39장 시드기야 -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함락(징계실현)	징계실현
→ 40-44장 잔류민들의 회복 프로그램 실행과 좌절	회복좌절

이 두 단계의 구조에서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만들어 내는 멸망의 길이 있다. 1단계에서는 멸망이 문턱까지는 와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드디어 멸망이 실행되는 것까지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두 단계를 통과하며 두 명의 왕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유다 멸망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멸망으로의 길이 여호야김 4년에 이루어진 여호야김 왕의 완고한 결정에 의해 그 실행이 전적으로 준

비된 것으로 나타난다(렘 25장).⁶⁾ 이렇게 결정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여호야김 4년 이후에는 유다가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아니라, 어떤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로 바뀐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늘 바벨론에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진 멸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다 철저히 유린당하는 멸망을 택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갈등한다(렘 21:8-9; 24:8-10; 27:12-13; 38:2, 17-18). 이것이 ‘시드기야-여호야김-시드기야’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는 시드기야 시절의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은 이미 중심에 놓여있는 여호야김 시대에, 더 정확하게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렘 25:1-14).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멸망의 원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호야김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들으라는 예언자의 음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주어진 기회를 상실한 왕의 대표자가 된다(렘 25:1-8; 36:1-3, 20-26).⁷⁾ 여호야김 4년은 이런 점에서 완악한 왕에 의해 결정된 유다의 운명을 보여준다. 여호야김의 완악함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자 예레미야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예레미야와 여호야김은 결코 얼굴과 얼굴을 맞댄 적이 없다.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여호야김은 늘 예레미야에 대하여 살기를 띠고 죽이려 한다(렘 26, 36장). 그렇다고 시드기야가 망국으로 가는 길에서 전혀 원인 제공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불순종의 형태를 보이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양극단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여호야김은 적의에 가득 차서, 능동적이며 적극

6) Gary E. Yates, "Narrative Parallelism and the 'Jehoiakim Frame': A Reading Strategy for Jeremiah 26-45", *JETS* 48 (2005), 281; J. G. McConville, *Judgment and Promise: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eremiah*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3), 56. 여호야김의 시대는 역사가 결정되는 분수령(a watershed moment)으로 회개의 가능성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본다.

7) Louis J. Stulman, *Order Amid Chaos: Jeremiah as Symbolic Tapestry* (The Biblical Semin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64.

적으로 여호와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물이라면(렘 26, 36장), 시드기야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수동적인 무반응의 소유자이다. 그의 선택은 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수동적인 특징이 있다(렘 21:1-2; 37:3, 17; 38:5).⁸⁾ 이런 시드기야의 성향으로 인해 여호야김 4년에 결정된 유다의 운명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불길한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보이는 두 단계의 과정에서 항상 시드기야 시대의 멸망의 길은 그 가운데에 위치한 여호야김 4년에 결정된 운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드기야 시대가 그 중심의 여호야김 시대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다. 중심에서 이루어진 선택으로 인해 맞이하는 운명의 중국인 것이다. 이것은 연대기적인 순서는 희생하고, 원인을 중심에 두고 방사형으로 그 결과가 분출되는 신학적인 형태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두 왕의 성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교와 평가는 곧 포로기에 처한 백성들 전체의 태도에 대한 대표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반성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⁹⁾

그렇다면 이제 풀어야 할 과제는 예레미야 30-33장에 나타난 ‘회복의 미래에 대한 이상’과 40-44장에 나타난 ‘잔류민들의 회복 프로그램 실행과 좌절’ 사이의 상관관계이다.¹⁰⁾ 이 두 단락에는 회복에 대한 미래 이상과 현실 프로그램 사이의 괴리감이 제시된다. 회복에 대한 이상적인 미래상이 제시하는 회복의 내용과 잔류민들이 행하는 현실 프로그램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 먼저 이 두 단

8) Yates, "Narrative Parallelism and the 'Jehoiakim Frame'", 277, n. 40. 시드기야는 비열함보다는 나약함이 더 드러나는 통치자이다.

9) Hermann-Josef Stipp, "Zedekiah in the Book of Jeremiah: On the Formation of a Biblical Character", *CBQ* 58 (1996), 627-648.

10) 예레미야 30-33장은 학자들에 의해 '작은 위로의 책'(the small book of consolation)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David Steele, "Jeremiah's Little Book of Comfort", *Theology Today* 42 (1986), 471-477; 장성길, "예레미야 30-33장에 나타난 결속구조 분석", 『구약논단』 26집 (2007년 12월), 92-110.

락을 도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¹¹⁾

	예레미야 30-33장	예레미야 40-44장
때	유다 포로를 돌아가게 할 미래의 날(30:3) - 70년의 포로기를 거친 뒤를 의미한다.	포로기 직후(40:1, 7) - 70년 포로기를 거치지 않은 회복
대상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30:3)	포로를 면한 유다 잔류민들(40:7-12)
회복 내용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30:22) - 토라의 회복 ¹²⁾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부: "잔류민들 모두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 함이러라"(43:1-7)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맺을 것: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 할 것이며...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 것 이라"(31:31-34)	하나님과의 새 언약 내용 파기: "백성의 낮은(작은) 자로부터 높은(큰) 자까지 다 나아와...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선악)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러" (42:1, 6)-결국 불순종
	약속의 땅이 회복 될 것: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32:43)	땅에서의 풍성한 소출 그러나 거부: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40:12)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42:10) - 결국 불순종
	다윗 계열의 지도자를 세우실 것: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33:15)	다윗 계열 지도자의 실패: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라를 살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함" (41:1-10) - 그리고 암몬으로 망명함

회복의 이상이 그려져 있는 예레미야 30-33장에는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 순서적으로 나타나 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성(30장), 둘째, 이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새 언약과 마음에 새겨진 법(31장), 셋째, 약속

11) Gary E. Yates, "New Exodus and No Exodus in Jeremiah 26-45: Promise and Warning to the Exiles in Babylon", *Tyndale Bulletin* 57 (2006), 1-22.

12) 민경규,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263-266.

의 땅의 회복(32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다윗 계열의 지도자에 대한 회복이다(33장). 이 모든 회복은 과거의 전형적인 구원사건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과 땅 정복’이라는 이상적인 구원사의 완성이다. 잔류민들에게서 이러한 회복의 이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 40-44장은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조기실험과 실패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 프로그램이 조기중영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잔류민들이 벌이는 회복 프로그램은 흡사 예레미야 30-33장에서 보여주는 회복의 이상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살아남은 유다의 잔류민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이 있으며, 땅이 그 풍성한 소출을 회복하는 듯한 현상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수상하기는 하지만 다윗 왕가의 혈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인물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잔류민들이 회복된 공동체를 희망적으로 열어갈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 계열 지도자인 이스마엘의 잔혹한 행위와 요하난과 잔류민의 불순종의 행위가 이들에게 열려질 미래의 이상에 찬물을 끼얹고 만다.

왜 이렇게 회복 프로그램이 조기에 중영되고 말았을까? 예레미야 30-33장의 회복의 미래에 대한 이상은 분명한 시점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렘 30:3; 31:1; 31:31; 33:14)에 이러한 회복의 이상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단락은 예레미야 21-29장과의 연결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은 분명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을 통과한 다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

가 되게 하되(렘 25:11-12)

그러나 예레미야 40-44장의 유다의 잔류민들이 펼치는 회복 프로그램은 분명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심판선고를 벗어난 것이다. 즉, 포로기 70년이라는 심판의 실행을 거치지 않은 때 이른 회복의 실행인 것이다. 잔류민들은 총독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의 손에서 벗어난 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는다. 이들의 행동은 흡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짐으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여호와를 알 것’(렘 31:34)이라는 회복의 이상을 미리 실현하겠다는 듯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몰려와 자신들에게 좋든지(선), 좋지 않든지(악)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이것은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겠으니, 70년의 포로기 없이 자신들을 지금 이 순간에 회복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거친 후의 회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자체가 뒤바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까지도 뒤흔들 수 있다. 늘 예레미야를 통해 즉답을 주셨던 것에 비교하면 “십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렘 42:7)는 것은 그 갈등의 결과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잔류민들의 철저한 순종의지에 자신의 선언도 뒤엎는 결정을 선포하신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렘 42:10)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잔류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마음에 새겨진 죄악을 다 털어낼 만큼의 충분한 속죄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다. 70년의 시간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배우자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짧으면 3대요 길면 4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간이다 (렘 29:6). 이 기간은 토라 속에서 악행에 대하여 징벌을 받는 기간으로 나타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출 34:7; 민 14:18; 신 5:9). 그리고 죄악에 대한 징벌을 받게 받는 것이 회복을 향한 온전한 길이며, 새로운 언약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레 26:40-42). 결국 징벌이 없는 회복은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때 이른 회복 프로그램은 조기중영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렘 43-44장).

이러한 사실은 또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회복과 축복의 이상을 좌절시키는 요소라는 것이다. 포로민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찬찬히 회고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의 땅을 잃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33장의 회복의 이상을 주체적으로 일으키신다 하여도 70년 뒤에 자동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레미야 18장 9-10절에 보면 건설하고 심으려 하다가도 악을 행하여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유익하게 하여 복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잔류민들의 경우처럼). 그리고 예레미야 30-33장에 주어진 이상적인 미래의 회복이 펼쳐지기 전에 분명히 일깨워 주셨던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

www.kci.go.kr

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9:12-14)

포로지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하며, 그분을 구하여야 하고,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 잔류민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다 결국 회복의 이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형태의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죄악을 철저히 씻어버리지 않는 한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을 상기하고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회복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70년의 심판을 통과하며 정화된 공동체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렘 31:34)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 남겨진 잔류민들은 결코 정통성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란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끌려간 포로 공동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잔류민으로 남은 빈민 공동체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셔서 빼앗기고 살았던 삶을 회복시키사, 희년의 이상처럼 땅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아 있는 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구원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포로 공동체를 무시할 수 있다(겔 11:14-21).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살펴볼 때 포로된 자들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는 불순종의 삶이었다. 이러한 비교 대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레미야서가 심판을 그렇게도 강조했다면, 그것은 죄와 악에 대

한 거부반응일 것이다. 회복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에 있다. 이제 회복의 이상을 눈앞에 두고, 누가 남아있건 결코 가나안의 잔류민들도,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희망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다(렘 24장).¹³⁾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진 빈 땅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졌기에 희망이 없는 빈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⁴⁾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 지역으로 그리고 이집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민족이 되었다. 이제 주어진 과제는 두 번 더 등장하는 여호야김 4년의 수수께끼이다. 이렇게 잔류민들의 회복 프로그램이 끝이 난 후에 또다시 등장하는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시점과 바룩의 탄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2) 바룩의 탄식(렘 45장)과 여호야김 4년(렘 45:1)

이제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왜 587년의 유다 멸망과 이들이 포로 된 후 잔류민들이 남아서 벌이고 있는 후대의 이야기가 마감된 이곳 예레미야 45장에 여호야김 4년에 탄식을 쏟아 부은 바룩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수수께끼의 해결이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신학적 구조를 풀어가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¹⁵⁾ 예레미야 45장에 등장하는 바

13) 라이너 알베르트, 「포로시대의 이스라엘」(배희숙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137-156. 원제는 Rainer Albertz, *Die Exilszeit vor 6 Jahrhundert v. Chr.* (Stuttgart: Kohlhammer, 2001).

14) Hans M. Barstad, "After the 'Myth of the Empty Land': Major Challenges in the Study of Neo-Babylonian Judah", O. Lipschits/J. Blenkinsopp(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3), 3-20.

15) 바룩의 탄식이 나타나는 렘 45장의 위치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존재한다. 첫째는 전승과정 속에서 편집의 실수로 잘못 놓여진 것으로 보는 견해, 둘째는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점이 잘못 쓰여진 것이며, 그 외의 내용은 제대로 된 위치라는 견해, 세 번째는 연대기도 위치도 올바르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연대기와 위치

록의 탄식에 대한 이유는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여호와와의 신탁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호야김 4년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36장에 한 절을 들 수 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렘 36:29)

예레미야 36장에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이 내용은 더 상세하게 또 다른 여호야김 4년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25장에 한 장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심 되는 내용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멸망할 것이며, 포로의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고이며 그 책임이 오롯이 여호야김 왕의 어깨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⁶⁾ 여호야김 4년에 바룩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그 때에 기록하며 탄식하고 있다. 왜 바벨론이 쳐들어오며,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포로기여야만 하는지, 그는 탄식한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גִּבּוֹרִים)을

가 올바르다고 주장하나 바룩의 탄식이 왜 그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6) Kathleen M. O'Connor, "Do not Trim a Word": The Contributions of Chapter 26 to the Book of Jeremiah", *CBQ* 51 (1989), 624.

게돌로트/큰일들)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렘 45:3-5)

이러한 바룩의 탄식에 대한 위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시드기야-여호야김-시드기야’의 불순종 그리고 ‘잔류민들의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여호야김 4년에 쏟아 부어진 바룩의 탄식은 이런 기나긴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룩이 꿈꾸었던 ‘큰 일’ 그 큰일은 예레미야서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어진 미래의 회복의 이상을 전하는 부분에 나타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מִיבְיָ** 게돌로트/큰일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야김 4년에 바룩은 심판을 넘어서는 즉각적인 회복을 위해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은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마음 판에 새겨진 죄악이 지워지고(렘 17:1), 그 마음 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렘 31:33). 하나님께서도 빠른 회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나, 그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성으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임으로 바벨론의 침공과 70년의 포로기를 거쳐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늘 동일한 탄식을 쏟아 붓는다. “언제까지입니까?”(시 13:1-2)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며 빠른 회복을 간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신다. 그 온전한 회복은 때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회복의 지름길이다. 때 이른 회복은 또다시 동일한 죄악의 굴레로 금방 돌아가기 때문이다. 바룩의 탄식이 이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렇게 유다가 망하고, 잔류민들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야 결국 바룩은

자신의 탄식에 대한 위로와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바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대표자의 구실을 한다. 그의 탄식은 곧 포로민들의 탄식과 일치되는 것이다. 바룩이 이해할 수 없듯이, 포로민들 또한 70년이라는 그 극렬한 심판선언을 이해할 수 없다. 희망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좀 더 심판의 강도를 낮추실 수는 없는 것인가? 이들 모두는 그 과중함에 전율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 탄식의 신음소리를 올린다. 그러나 그 해답은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말씀해 주셔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심판선언이 긴 세월의 경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해가 된다. 587년의 멸망이 일어나고, 가나안에 남은 유다 잔류민들의 수년에 걸친 불순종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다. 회복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 것이다. 징벌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은 회복은 곧바로 불순종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사실이 가슴에 와 닿는다.¹⁷⁾

예레미야 45장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하며, 여호야김 4년을 돌아볼 것을 제시한다. 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상을 다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다. 바룩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움으로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여호야김 4년의 그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모진 포로기와 결국 바벨론이 무너질 그 날까지 순종의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선언이 에벳멜렉이나 바룩 혹은 레갑 즉

17) 여호야김 4년은 느브갓네살 원년으로 BC 605년이다. 여기에 렘 52:30은 느브갓네살의 최종적인 유다 침공이 그의 통치 23년에(BC 582년)에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것은 유다 멸망이 느브갓네살 통치 18년인 BC 587년 이었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다라가 암살당하고, 바벨론 주둔군들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잔류민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침공 전으로 본다면 여호야김 4년으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속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살펴볼 때 최종적인 구원의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잔류하게 될 사람들은 소수일 것이라는 암시가 주어져 있다(목숨을 전리품처럼 얻을 것 - 렘 21:9; 38:2; 39:18; 45:5). 불순종으로 일관한 잔류민들을 통하여서는 결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역사가 심판을 통과한 후 다시 회복의 이상이 그려져 있는 중심인 예레미야 30-33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구조적인 골격이다.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배열의 원리를 무시한 듯한 여호야김 4년의 바룩의 탄식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 45장은 잔류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각적인 회복의 길인 큰 일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장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제 바룩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포로민들은 여호야김 4년째에 주어진 열방신탁이 실현되는 그 기나긴 과정(렘 46:1-2)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룩의 탄식에 대한 답이 주어진 예레미야 45장 이후에 기나긴 7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열방신탁(렘 46-51장)이 자리 잡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일 것이다.

3) 열방신탁(렘 46-51장)과 여호야김 4년(렘 46:2)

예레미야 45장이 끝나고 예레미야 46-51장까지의 열방의 흥망성쇠라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이제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예언의 책임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 회복은 70년의 기간일터인데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이며 그 순서는 이집트로 시작하여(렘 25:19) 엘람과 메대라는 북쪽의 모든 왕들에게 미칠 것이고(렘 25:25), 그 마지막은 세삭 왕¹⁸⁾ 즉 바벨론 왕에게 이를 것이다

18) '세삭'이란 말은 '아트바쉬'(Atbash)라는 언어의 유희로 '바벨'을 대신하는 것이다. '아트바쉬'의 원칙은 첫 알

(렘 25:26).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이 예언은 예레미야 46-51장에 실현되는데 그 실현의 시간 또한 예언이 주어진 그 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여호야김 4년부터 징계의 프로그램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다(렘 46:2).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열방십관 예고와 열방신탁의 순서를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레미야 25:19-26	예레미야 46-51장
1	애굽(19절)	애굽(46:2-26)
2	블레셋(20절)	블레셋(47:1-7)
3	에돔, 모압, 암몬(21절)	모압(48:1-47), 암몬(49: 1-6), 에돔(49:7-22)
4	두로, 시돈, 바다 건너쪽 섬들(22절)	다메섹(49:23-27)
5	드단, 데마, 부스, 살쩍을 깎은 자들, 아라비아 (23-24절)	게달, 하술(49:28) 살쩍을 깎은 자들(49:32)
6	시므리, 엘람, 메대, 북쪽 원근의 왕(25절)	엘람(49:35-39)
7	세삭-바벨론(26절)	바벨론-세삭(50-51장)

세세한 나라의 이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에도, 지리적인 면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그 중요한 흐름에 있어서 예레미야 46-51장에 나타난 열방신탁은 예레미야 25장의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그 예언의 내용을 따라서 이집트부터 시작하여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과 두로 지역 그리고 동방의 아라비아 지역을 통과하고, 엘람을 거쳐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일단락된다.¹⁹⁾ 그렇다면 예레미야 46-51장은 예레미야 45장에 주어진 회복을 향한 탄식을 그러한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는 예언 성취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유다는 이미 여호야김 4년에 이집트가 같고

파벳은 마지막 알파벳으로, 두 번째 알파벳은 끝에서 두 번째 알파벳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세삭'(שֶׁסַק)이 '바벨'(בָּבֶל)로 바뀌는 것이다.

19) Duane L. Christensen, "In Quest of the Autograph of the Book of Jeremiah: A Study of Jeremiah 25 in Relation to Jeremiah 46-51", *JETS* 33 (1990), 145-53. 이 논문은 두 본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스에서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렘 46:1), 비록 유다도 무너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미래 회복프로그램 또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열방이 겪는 그 과정들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된다. 그러한 성취를 살피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방신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예레미야 30-33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 전체는 양쪽에서 가운데를 향하여 바라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부인 예레미야 1-29장과 후반부인 예레미야 34-52장이 중심인 예레미야 30-33장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김 4년은 유다의 멸망이 결정된 날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유다의 미래의 희망 또한 제시된 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애굽부터 바벨론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다.²⁰⁾ 그리고 그 동일한 해에 드디어 애굽부터 열방심판이 시작된다(렘 46:1-2). 즉, 여호야김 4년에 유다의 멸망도 예고되고 있지만, 열방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회복의 이상 또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욱 중요한 것인가를 논한다면 이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시점에서 예레미야서가 기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멸망의 통보보다는 그 멸망의 고통을 딛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70년의 기간일 것이다. 열방신탁이 여호야김 4년에 시작하여(렘 46:2) 시드기야 4년에 마감되고 있다는 것(렘 51:59)은 바벨론의 세력이 가장 강력한 그 시점에 그것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희망적이다.²¹⁾

20) James Muilenburg, "Baruch the Scribe", John I. Durham/J. R. Porterin(eds.), *Proclamation and Presence: Old Testament Essays in Honour of Gwynne Henton Davies* (London: SCM Press, 1970), 224.

21) H. G. L. Peels, "You shall Certainly Drink!": The Place and Significance of the Oracles Against the Nations in the Book of Jeremiah", *EuroJTh* 16 (2007), 83.

이처럼 열방신탁인 예레미야 46-51장은 애굽으로 시작하여 예레미야 50-51장에 나타난 바벨론이 여호야김 4년에 기록된 그 책의 예언 대로(렘 25:12-13) 재앙을 받고 무너지기까지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이 회복의 길로 나아올 것이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렘 50:4-8,17-20,33-34; 51:5-6,10,45).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끝은 분명 예레미야 30-33장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바룩으로 대표되는 포로 공동체가 고대하는 새로운 회복의 큰 일로 나아갈 수 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렘 30:3)

그 70년의 포로기 동안 에벳멜렉(구스인)과 바룩(유대인)이라는 순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방인이든(에벳멜렉) 유대인이든(바룩)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레미야 46-51장에 제시된 여호야김 4년의 애굽부터 마침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시점까지 견디어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잔류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과 그 좌절 이야기(렘 40-44장)는 에벳멜렉(렘 39:15-18)과 바룩(렘 45장)이 비록 “생명(חַיִּים) 네페쉬)을 노략물(לַחֵם) 살랄) 같이 얻을 지라도 미래가 있다”(렘 39:18; 45:5)는 제시로 감싸고 있다.

- A. 에벳멜렉 이야기: 생명을 노략물처럼 얻을 것(렘 39:15-18)
- B. 잔류민들의 회복 프로그램 실행과 그 좌절(렘 40:1-44:30)
- A'. 바룩의 이야기: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실 것(렘 45:1-5)

이것은 회복은 결코 잔류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노략물, 즉 전리품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지라도 징계와 속죄의 70년을 보내고 있는 포로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렘 50:20).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저절로 포로에서의 해방과 미래의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벳멜렉과 바룩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미래를 갈망하는 그 소망으로 인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3. 나가는 말

예레미야서에 네 번 등장하는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배치되어 있다. 첫 두 번의 출현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는 단락(렘 21-33장의 25:1)과 그 멸망예고의 성취(렘 34-44장에서 36:1)를 이루는 중요한 분기점에 나타나고 있으며, 유다의 망국에 대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 이 두 번의 여호야김 4년에는 유다의 멸망과 70년의 포로기가 예고된다(렘 25, 36장). 그 다음 세 번째로 여호야김 4년이 나타나는 예레미야 45장은 유다의 다수의 사람들이 포로 된 뒤에 남겨진 잔류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회복 프로그램이 무위로 끝난 뒤에 등장한다. 이 회복 프로그램은 때 이른 시작으로, 이미 여호야김 4년에 주어진 70년의 포로기와 바벨론의 멸망까지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질 진정한 회복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예레미야 45장은 주류가 여호야김 4년에 멸망과 70년의 바벨론 포로라는 예언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며 쏟아 부은 바룩의 탄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절망적인 예언을 책에 기록하며 부르짖은 바룩의 탄식은 마침내 잔류민들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실패한 다음에야 그 적절한 응답이 주어진 것이다. 죄악에 대한 징벌이 없는 즉각적인 회복은 곧 실패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렘 30:11,17; 31:34; 50:20). 잔류민

들이 벌였던 회복 프로그램은 70년의 포로기를 통과한 진정한 회복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기종영되고 만다. 예레미야 45장의 바룩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 동일한 여호야김 4년에 주신 예레미야 25장의 예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회복은 결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인스턴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멸망과 동시에 회복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회복 사이에는 정화의 과정을 위해 통과해야 할 다리가 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죄가 사해지고, 마음이 성결해지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쓰일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의 바룩의 탄식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여호야김 4년이 등장하게 된다(렘 46:2). 이 시점은 예레미야 46-51장에 나타난 열방신탁을 이끄는 출발선이 된다. 이 열방신탁은 애굽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나타난 바벨론이 여호야김 4년에 기록된 그 책의 예언대로(렘 25:12-13)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순간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날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이 회복의 길로 나아올 것이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렘 50:4-8, 17-20, 33-34; 51:5-6, 10, 45).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끝은 분명 예레미야 30-33장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회복의 큰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백성들의 준비에 의해 가능해진다. 70년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준비될 때 오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쓰러질 수도, 혹은 계속 건재할 수도 있다. 곳곳에서 극렬한 쇠꼴무 같은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

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로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함이다. 예레미야 45장이 신속한 회복 프로그램이 무위로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이유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지시하기 위한 목표가 있고, 그 방향은 잔류민이 보여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렘 30:3)로 시작하는 예레미야 30-33장에 나타난 진정한 회복의 길이 하나님의 때에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여호야김 4년은 절망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이 제시되는 시점이 된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배설의 원리를 무시한 듯이 등장하는 4번의 동일한 시점인 여호야김 4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시점은 꼭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예레미야서를 풀어나가는 신학적인 키의 역할을 한다.

4. 참고문헌

- 라이너 알베르츠, 「포로시대의 이스라엘」 (배희숙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원제 Albertz, Rainer, *Die Exilszeit vor 6 Jahrhundert v. Chr.* (Stuttgart: Kohlhammer, 2001).
-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53집 (2014년 9월), 256-279.
- 박동현, “예레미야”,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88-592.
- 박철우, “에스라-느헤미야서의 스토리 전개 패턴과 신학”, 「구약논단」 59집 (2016년 3월), 125-156.
- 송제근, “예레미야서의 개관과 신학”, 「예레미야 1: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How 주석 25;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9), 11-25.
- 장성길, “예레미야 30-33장에 나타난 결속구조 분석”, 「구약논단」 26

- 집 (2007년 12월), 92-110.
- Barstad, Hans M., "After the 'Myth of the Empty Land': Major Challenges in the Study of Neo-Babylonian Judah", O. Lipschits/J. Blenkinsopp(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3), 3-20.
- Christensen, Duane L., "In Quest of the Autograph of the Book of Jeremiah: A Study of Jeremiah 25 in Relation to Jeremiah 46-51", *JETS* 33 (1990), 145-153.
- Craigie, P. C./P. H. Kelley/J. F. Drinkard, *Jeremiah 1-25* (WBC 26; Dallas, Texas: Word Books, 1991).
- Kim, Jae Gu, "Chiasmus-The Structure of The Book of Gene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Michael's College, Toronto School of Theology, 2003).
- McConville, J. G., *Judgment and Promise: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eremiah*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3).
- Muilenburg, James, "Baruch the Scribe", John I. Durham/J. R. Porterin(eds.), *Proclamation and Presence: Old Testament Essays in Honour of Gwynne Henton Davies* (London: SCM Press, 1970), 215-238.
- O'Connor, Katherine M., "'Do not Trim a Word': The Contributions of Chapter 26 to the Book of Jeremiah", *CBQ* 51 (1989), 617-630.
- Peels, H. G. L., "'You shall Certainly Drink!': The Place and Significance of the Oracles Against the Nations in the Book of Jeremiah", *EuroJTh* 16 (2007), 81-91.

- Steele, David, "Jeremiah's Little Book of Comfort", *Theology Today* 42 (1986), 471-477.
- Stipp, Hermann-Josef, "Zedekiah in the Book of Jeremiah: On the Formation of a Biblical Character", *CBQ* 58 (1996), 627-648.
- Stulman, Louis J., *Order Amid Chaos: Jeremiah as Symbolic Tapestry* (The Biblical Semina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 Yates, Gary E., "Narrative Parallelism and the 'Jehoiakim Frame': A Reading Strategy for Jeremiah 26-45", *JETS* 48 (2005), 263-281.
- _____, "New Exodus and No Exodus in Jeremiah 26-45: Promise and Warning to the Exiles in Babylon", *Tyndale Bulletin* 57 (2006), 1-22.

검색어

예레미야

여호야김 4년

시드기야

바룩

70년 포로기

The Riddle of the Fourth Year of Jehoiakim's Reign in the Book of Jeremiah

Jae Gu Kim

Lecturer at Seoul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h. D.

Mentions of the fourth year of Jehoiakim's reign in the book of Jeremiah have long perplexed Old Testament scholars. Not only the fact these appear in the text, but also their corresponding literary contexts, are vexing problems. Thus, many scholars have hastily concluded that the book of Jeremiah has no coherent literary structure.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book of Jeremiah has a coherent structure and that the seemingly unplanned appearances of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provide a key for understanding the book.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appears four times (25:1; 36:1; 45:1; 46:2) at strategic places in the book. The first two occurrences are in passages that warn of Judah's downfall (chaps. 21-33; 25:1) and that

show the fulfillment of the warning (chaps. 34-44; 36:1). In these two occurrences, the year functions as a notice of the certainty of Judah's downfall and of the seventy-year exile (25:1; 36:1). Specifically, the literary structure twice has the frame "Zedekiah (chaps. 21-24; 34)—Jehoiakim (chaps. 25-27; 35-36)—Zedekiah (chaps. 28-33; 37-44)." This frame emphasizes that the downfall and exile of Judah is due to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The next appearance of Jehoiakim's fourth year is in Jeremiah 45. This time it completely breaks the flow of the chronological order. Judah has already been destroyed, the people have been exiled to Babylon, and the remaining people has voluntarily gone into Egypt in order to avoid Babylonian vengeance. Thus the occurrence of Jehoiakim's fourth year in 45:1 seems to be unreasonable. But in actuality it is the right place, in that it occurs after the remaining people in Judah have failed to revitalize the restoration program (chaps. 40-44). God had already proclaimed in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that the period of the exile would be seventy years and that restoration would occur after the seventy years of exile (chap. 25). Nonetheless, God gave the remnant His word that they could live in the land of Judah and be fruitful in that land without undergoing the seventy year exile. Unfortunately, however, they failed to grasp that opportunity given by God, who graciously changed His mind. Right after their failure,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appears, with the lament of Baruch. This appearance of the year is meant to give an answer to Baruch, who lamented the severe punishment of the seventy-year exile. The remnant's failure at that time can be considered God's answer to Baruch, who lamented over the long period of seventy years of exile prophesied in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For it is after their failure that

Baruch was able to understand why God could not help but let them undergo the long and severe exile of seventy years. The reason is that restoration does not come quickly but takes time, until the word of God is written on people's minds.

The last occurrence of the mention of Jehoiakim's fourth year comes right after Baruch's lament (46:2). The oracle against the nations from Egypt to Babylon was proclaimed in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can be a sign of both the downfall of Judah and the beginning of Judah's restoration, in that Egypt began to be destroyed in that year (46:2). And at the end of the seventy years Babylon would also fall.

The seemingly displaced appearances of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therefore, can be seen as taking their proper places, and helping to unravel the 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Keywords

Jeremiah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Zedekiah

Baruch

Seventy year Exilic Period

■ 투고일: 2016년 7월 2일

■ 심사일: 2016년 8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6년 8월 8일

www.kci.go.kr